

不確實성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田 馨*

目 次

I. 序 論	IV. 不確實性 下의 스태그플레이션
II. 케인즈와 不確實性	V. 結 論
III. 스태그플레이션의 吟味	參考文獻

I. 序 論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資本主義 經濟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침체 局面에 빠진 후 좀처럼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傳統的 경기순환 이론에 의하면 景氣가 침체 局面에 빠질 경우 완만한 經濟活動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國家가 每年 10% 以上の 인플레이션을 經驗하고 있다.

景氣 침체에 따른 低成長, 失業의 增加, 높은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필립스 曲線 理論을 떠나 魔의 三重奏를 보이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또는 失業인플레이션(unemployment inflation)은 相當한 失業이 存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物價水準이 上昇하고 있는 現象을 가리킨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失業率이 物價水準과 함께 同時에 上昇하고 있는 경우가 許多하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現象을 說明¹⁾함에 있어서 一部에서는 社會福祉制度의 擴大에서 그 原因을 찾고 있다. 消費性向이 높은 나태한 빈민失業層에 대한 보조금, 또는

* 本 研究所, 研究員, 檀國大學校 商經大學 經濟學科 助教授

1)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A.S. Blinder, *Economic Policy and the great stagfl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를 참조할 것.

失業수당의 지급은 中産層에 대한 高率의 稅金과 財政赤字를 낳게 되며 高稅率은 낮은貯蓄意慾과 低投資를, 財政赤字는 通貨發行의 增加를 초래하여 低成長과 인플레이션의 共存, 만성적인 産業生産性的 低下를 가져와 經濟體質의 弱화를 가져 왔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한편 一部에서는 이와함께 油價引上, 勞組 壓力에 따른 原價 上昇, 그리고 肥大한 關稅 率의 等을 스태그플레이션의 原因으로 指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같은 經濟內的 또는 經濟外的 要因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의 說明을 피하는 代身 클라우어(R. Clower)와 레온후바드(A. Leijonhufvud)에 의한 케인즈의 再解釋에 따른 케인즈의 不確實성에 대한 見解와 스태그플레이션과의 關係를 說明하고자 한다.

본 序論에 이어 第2節에서는 케인즈의 不確實성에 대한 見解를 살펴보고 第3節, 第4節에서는 傳統的인 觀點 및 不確實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過程을 說明하였다. 끝으로 第5節은 結論部分으로 이 글에서 얻은 結果를 要約 收錄해 두었다.

Ⅰ. 케인즈와 不確實性

오늘날 活潑히 進行되고 있는 케인즈의 再評價에 대한 相對的 重要性을 떠나²⁾ 이 節에서는 그간 등한시 되어 왔던 不確實성에 대한 케인즈의 見解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케인즈는 1906年에서 1911年 사이에 그의 많은 時間을 確率理論의 研究에 바쳤다.³⁾ 이와같은 研究는 러셀(B. Russell)과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에 뒤이은 確率에 대한 論理的 基礎를 提供하는데 있었다. 그 當時 x 가 y 인 確率이 p 라는 前提의 意味를 나타내는 明示的 理論은 벤(Venn)에 의하였으며 이는 確率에 대한 相對度數理論을 提供해 주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確率에 대한 相對度數理論은 充分한 觀察에 따른 x 가 y 인 回數를 總觀察度數로 나눔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케인즈는 確率言語를 도박의 次元을 넘어 實際 世界에서의 選擇의 問題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意思決定에 있어서 어떤 行動에 대한 여러가지 代替的인 方案에 대한 評

2) 이에 대한 代表的 研究로는 A. Leijonhufvud, *On Keynes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s of Keyne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8.과 P. Davidson, *Money and the Real World*, New York, Halstead Press, 1972. 를 들 수 있다.

3) R. F. Harrod, *The Life of J. M. Keynes*, New York, MacMillan, 1951, p. 133.

不確實性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價는 가장 많이 發生될 수 있는 결과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結果는 장래에 나타나게 되며 現在에 있어서는 觀察될 수가 없는 것이다. 가령 來日 비가 내릴 確率이 1/2이라는 것은 가능한 來日의 世界에 대한 記述이 아니고 來日에 대한 우리들의 信念을 表現한 한 方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未來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보다 많이 가질 수는 없으며 來日에 대한 決定은 現在에 내려야만 하는 것이다.

「確率에 관한 理論」⁴⁾ 第8章에서 케인즈는 確率에 관한 相對度數理論을 기각하였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 드리게 되면 確率이 人生에 대한 指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드려야 하며 따라서 理性에 따라 行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⁵⁾ 代身에 케인즈는 確率은 有利한 증거와 不利한 증거간의 밸런스(balance)에 關係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知識과 無知問의 絕對量問의 밸런스에 關係되고 새로운 증거에의 接近은 하나의 主張에 대한 加重值를 增大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는 때때로 하나의 主張에 대한 確率을 감소시키지만 언제나 그 加重值를 增加시킨다고 指摘하고 있다.⁶⁾

따라서 케인즈에 의하면 根本的인 不確實性의 問題에서 選擇을 위하여 確率을 供用하는데 있어서는 確率 自體 뿐만 아니라 이 確率에 대한 個個人이 갖고 있는 信念도 함께 論議되어야 함을 뜻하고 있다. 높은 確率은 낮은 確率의 경우 보다 더 確實하다고 할 수가 있으며 이는 不確實性이 確率 값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고 信念의 不足에 연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確率은 信念과 결부될 때에 限하여 사람들은 생활에 대한 指標로써 確率을 使用할 수가 있고 또 合理的으로 行動할 수 있게 된다.

經濟主體가 豫想效用에 대한 評價를 確率에 의할때 이 確率에 대한 信念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確率에 의한 豫想效用的 極大化를 도모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케인즈에 의하면 信念의 증대는 위험(risk)만이 內包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마찬가지로 不確實性에 의하여 特徵지어지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⁷⁾ 장래에 대한 現在의 어떠한 選擇도 根本的으로 不確實하며 이것은 未來란 論理的으로

4) *A Treatise on Probability*, in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III, London, Mac-Millan, 1973. 初版은 1921년에 發刊되었다.

5) *Ibid*, p. 104.

6) *Ibid*, p. 77.

7) 위험이란 알려진 확률分布에서의 선택을 뜻하며 不確實性은 알려지지 않은 確率分布에서의 선택을 뜻한다.

G. L. S. Shackle, *Uncertainty in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55, pp. 9-10.

로 알 수가 없는데 연유되고 있다. 장래의 여러가지 代替案에 대한 確率을 정확히 얻기 위하여서는 장래에 대한 標本抽出을 수행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問題이다. 따라서 不確實性의 問題는 위험을 內包하고 있는 問題로 축소 될 수가 없게 된다.

케인즈는 그의 「雇傭, 利子 및 貨幣에 관한 一般理論」이 출판된 이듬 해인 1937年 「雇傭에 관한 一般理論」⁸⁾에서 다음과 같이 中心 主題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言及하고 있다.

“따라서 傳統的理論”으로부터 나의 이별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가 있다.

첫째, 傳統的理論은 우리가 實際로 所有하고 있는 知識과는 다른 어떤 種類의 未來에 대한 知識을 所有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잘못된 合理主義는 벤담(Bentham) 流의 計算에 연유되고 있다. 장래가 計算不能하다는 假說은 行動原則에 잘못된 해석을 가져오게 되며 또한 完全한 의심, 독단, 희망 그리고 공포와 같은 감추어진 要素를 過小評價케 하고 있다.”⁹⁾

따라서 케인즈는 傳統的 理論에서 위험을 다루는데 적절한 確率 도구를 不確實性이 介在된 問題를 다루는데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傳統的理論에서는 數學的 期待值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豫想效用은 極大化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個人들의 行動은 오늘 해야되며 그들의 選擇 結果는 來日에 가서야만 밝혀 지게 된다. 어느 한 時點에서 수행된 모든 경제활동은 時間에 걸쳐 그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經濟人은 가장 最近에 일어난 現象과 다른 사람들의 行動에 依存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택은 흔들리기 쉬운 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돌발적이고 격렬한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¹⁰⁾

이와같은 不確實性의 主題가 그의 「一般理論」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나의 理論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가 있다. 公共의 心理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雇傭

8)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 1937.

Reprinted in R. W. Clower ed., *Monetary Theory*, Penguin modern economics Readings, 1973.

9) 케인즈는 傳統的 이론을 Ricardo 에서 Pigou 에 이르는 이론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Smith, Ricardo, Marx, Malthus 等과 區分하기 위하여 限界效用學派 以後를 新古典學派로 부르고 있다.

10) Keynes, *supra*, n. 8, p. 224.

11) *Ibid*, p. 217.

不確實性和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과 産出物의 水準은 大體로 投資量에 依存하게 된다.…… 비록 다른 要素도 産出物에 影響을 주고 있으나 投資率을 決定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며 이는 보다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는 장래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에 影響을 받으며 장래에 대한 우리들의 知識은 미약하기 때문이다.¹²⁾

즉 케인즈는 雇傭은 産出物水準에 依存하고 있으며 産出物의 水準은 投資水準에 依存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資本의 限界效率로서 投資는 資本財가 耐久期間中 誘發시키는 所得의 割引價値이며 割引要素는 證券利率로서 證券과 資本財는 여러 種類의 資産中 長期的인 面에서 完全 代替財이기 때문이다.¹³⁾ 즉 價値저장 수단으로서의 資産에 있어서 證券과 資本財間에는 完全 代替성이 없으나 既存 資本財와 장래의 새로운 資本財의 購入間에는 代替가 可能하다. 따라서 利率의 變化는 同一한 장래의 豫想所得의 흐름을 가진 새로이 生産되는 財産의 장래가격과 價値저장으로서가 아닌 장래의 豫想所得의 획득수단으로서 既存資本財의 現在 價値를 變化시키게 된다. 따라서 여기엔 不確實性의 問題가 介入되며 證券 대신에 既存 資本財의 장래의 豫想所得의 흐름에 교란이 생기게 된다. 證券價格(利率)은 證券市場의 投機에 의하여 主로 決定되며 豫想利益이 投資를 決定하며 이와 같은 長期豫想은 現在의 選擇理論으로는 分析될 수가 없는데 이는 所得의 흐름은 不確實한 장래에 걸쳐 存在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傳統的인 理論은 다음의 몇가지 이유로 反對 見解를 보이고 있다.

첫째, 이와같이 決定된 雇傭水準은 完全 雇傭水準이며 이는 어떠한 賃金率下에서 勞動의 超過供給은 賃金率은 下落시키며 따라서 낮은 賃金率下에서 完全雇傭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비록 豫想이 빛나가 投資量이 감소된다고 할지라도 利率에 直接的으로 依存된 貯蓄으로부터 생긴 貸付資金의 供給이 投資 目的을 위한 需要를 증가할지 모르며 따라서 超過供給은 利率을 다시 均衡 水準으로 回復시키게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와같은 內容은 資本主義 市場經濟가 하나의 安定된 體係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市場에서의 價格機構가 均衡으로부터 벗어난 偏差를 줄일 수 있다는 즉 經

12) Ibid, p. 223.

13) Leijonhufvad, supra n. 2. 第3章 및 P. Davidson, Supra. n. 2 第4章 참조.

G.L.S. Shackle, *The Years of High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67, pp. 149-52.

濟의 自律 調節 機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失業이 存在하게 되면 市場 機構의 自然 作用內에 어떤 경직성이나 장애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케인즈는 물론 이와같은 見解를 전부 否認하고 있다. 貨金下落에 대하여서 勞動市場에서 勞動의 供給者나 需要者가 實質 貨金を 下落시켜야 하나 그들은 단지 名目貨金만을 管理할 수 밖에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비록 名目貨金의 下落은 名目物價의 下落을 가져와 財貨의 需要와 그 결과 雇傭을 促進시킬지는 모르지만 名目貨金은 貨金勞動者의 所得이므로 그들의 財貨에 대한 需要는 下落되게 된다고 하며 全體적으로 보아 失業이 存在하는 경우 名目貨金의 下落으로부터 期待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利率에 대하여서는 케인즈는 貯蓄量이 全적으로 利率에 依存하고 있다는 것을 否認하고 있다. 投資에 대한 決定이 支出되는 卽 貯蓄되는 所得을 誘發시킨다고 하고 非消費財에 대한 支出은 受取所待과 같아져야 하나 消費財에 支出되지 않기 때문에 計測된 貯蓄은 언제나 計測된 投資와 같게 된다.

따라서 投資決定에 主로 作用하는 不確實性은 非自發的 失業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 期待가 무너짐에 따라 投資는 감소되며 이는 乘數를 通하여 初期의 攪亂을 증폭시키며 그 결과 產出物과 雇傭水準을 下落시키게 된다. 完全雇傭은 장래에 대한 確信을 가질 수 있는 天國에서나 이루어 질 수 있으며 未知의 來日에 대한 決定을 現在하여야 하는 現實 世界에서는 失業은 發生되게 마련인 것이다.

끝으로 指摘하고자 하는 點은 첫째, 資本財는 그 耐久年數가 길다는 事實이며 둘째 貨幣를 保有하고자 하는 慾求는 장래에 대한 우리들의 不信의 발로라는 사실이며, 셋째, 生産에는 時間이 따른다는 事實로서 時間이 本質的인 이 世界에 關係된 事實들이다. 時間과 不確實性은 서로 混合되어 있으며 時間의 存在는 필연적으로 不確實性을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의 體系는 時間이 介入하는 점에서 볼 때 動學의 問題가 되며 不確實性으로 因한 投資의 不變性을 고려할 때 產出物과 雇傭의 一定 水準에의 유지는 가능하지가 않게 된다. 이 點에서 不確實性은 不均衡現象으로 불리울수 있으며 케인즈는 바로 이와같은 不均衡의 問題를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다. 따라서 不確實性의 世界에 있어서 雇傭水準의 均衡으로의 調整은 無意味하며 이 體系에 있어서는 均衡이 存在하지 않게 된다.

Ⅲ. 스태그플레이션의 吟味

이 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不完全競爭市場 經濟에서 發生되는가를 正統的 巨視 經濟理論에 의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이에 이어 다음 節에서 다른 不確實性下的 스태그플레이션 過程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이 短期的인 政策 처방으로서 自虐的인 디플레이션이나 加速的인 인플레이션 보다는 選好될 수 있다는 政策的 시사점을 導出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및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幾何學的 圖解에 局限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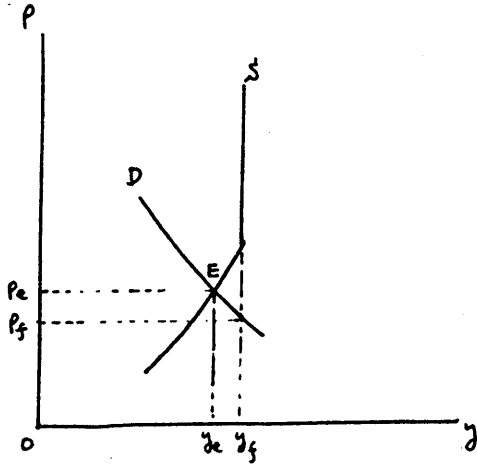
다음 <그림 1>은 物價水準 p 와 實質國民所得水準 y 와의 關係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여기서 D 와 S 는 各各 右下向하는 總需要曲線과 右上向하고 있는 總供給曲線을 나타내고 있으며 總供給曲線 S 는 定義上 完全雇傭水準인 $y = y_f$ 일 때 縱축에 平行한 水直線으로 나타내고 있다. 均衡 物價水準 p_0 와 均衡國民所得水準 y_0 는 E 點에서 總需要와 總供給의 交叉點으로 定義된다. 이제 完全雇傭 物價水準 p_f 를 y_f 와 總需要曲線 D 가 만나는 點으로 定義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均衡狀態에서 相當한 失業이 存在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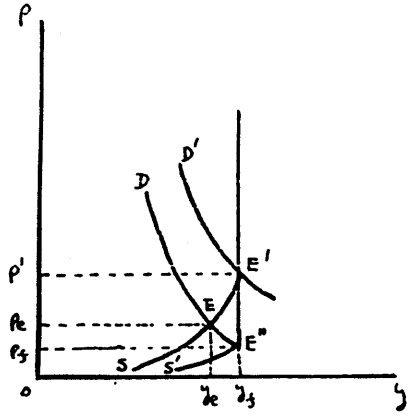
즉 <그림 1>은 過小雇傭(under-employment)과 이에 따른 잠재적 stagflation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失業이 存在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狀態에서 벗어나기 위한 政策的 처방을 說明하면 다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失業에 대한 政策的 처방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總需要 D 를 D' 로 轉位시키는 케인즈 學派(Keynesians)의 처방으로, 즉 이는 財政·金融政策的 완화로서 수행될 수가 있다. 더우기 이 方法은 디플레의 方法 보다 더 급속히 수행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稅 以外엔 다른 어떤 直接的인 損失을 가져 오지 않는다.

이제 만일 微調整(fine-tuning)에 의하여 새로운 均衡點 E' 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總需要曲線의 轉位와 함께 y 의 增加와 함께 完全雇傭水準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 結果 物價水準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_0 에서 p' 으로 上昇하게 된다. 즉 巨視 經濟理論에서 豫想하는 바와 같이 이 自體엔 아무런 歪曲現象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단



<그림 1>



<그림 2>

지 雇傭의 증대와 인플레이션의 費用間의 문제가 야기될 뿐이다. 雇傭과 인플레이션간의 規範的 問題는 雇傭增大에 관한 政策의 선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費用은 總供給曲線 S의 기울기에 依存하게 되며 만일 總供給曲線이 거의 水平을 이루고 있을 때 즉 供給의 彈力性이 거의 無限일 때에는 失業에 대한 이와같은 擴張政策에 대한 依存은 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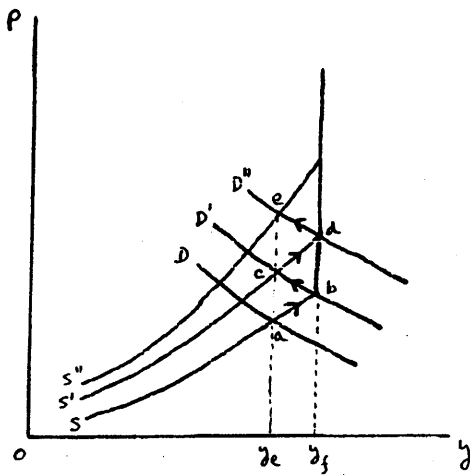
케인즈學派의 이와같은 需要管理政策에 反하는 또 하나는 디플레이의 方法으로 이는 1929年 資本主義 經濟를 위기로 몰았던 大공황때 있었던 總需要曲線의 下方 轉位를 가져오지 않은 限 總需要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取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政策은 物價水準이 p_e 에서 p_f 로 下落되기를 그대로 기다리는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方法은 賃金의 下落이 包含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調整이 있어야 함을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에 貨幣 賃金, 農産物 패리티(parity)價格 또는 利潤 마진이 下向 경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이 政策은 技術進歩에 따른 物價水準의 下落을 뜻할 수가 있다. 이와같은 技術의 進歩와 價格의 伸縮性의 複合效果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總供給曲線은 S에서 S'으로 轉位되어 p' 以下の 價格水準에서 보다 많이 供給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새로운 供給曲線 S'은 E''에서 總需要曲線 D와 交叉되게끔 그려졌다. 따라서 점 E''에

不確實性和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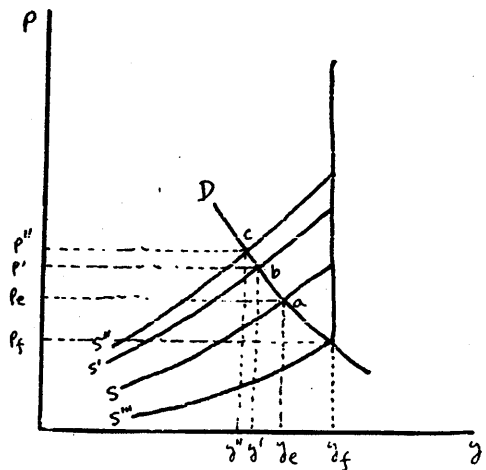
서 完全雇傭 國民所得水準과 完全雇傭 物價水準 p_f 를 이루게 된다. 이와같은 完全雇傭政策은 케인즈學派의 需要管理 보다는 長期的이고 또는 可能할지는 의문이지만 디플레의 方法으로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은 完全雇傭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 過程을 收錄하고 있다. 이제 點 a 는 〈그림 1, 2〉의 失業이 存在하고 있는 點 E 와 같다. 따라서 完全雇傭水準에 도달하기 위하여 케인즈學派의 政策方案이 採擇되고 그 결과 財政·金融政策의 완화에 따라 總需要曲線이 D 에서 D' 로 轉位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일 總供給曲線이 彈力的이라고 하면 物價水準이 큰 幅으로 등귀하지 않은채 b 點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경우의 物價水準의 上昇을 需要牽引(demand-pull) 인플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經濟가 完全雇傭水準에 가까워지면서 生産物 또는 投入物의 稀少性和 함께 수확체감의 法則이 作用하게 됨에 따라 物價는 上昇하게 된다. 特히 勞動, 農業 또는 企業 등의 壓力은 完全雇傭水準에 도달함에 따라 보다 높은 賃金, 財貨價格 그리고 利潤마진을 要求하게 된다. 그 결과 總供給曲線은 S 에서 S' 으로 轉位되게 된다. 이와같은 과정을 費用引上(cost-push)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均衡點인 c 點을 낳게 된다. 즉 費用引上에 의하여 經濟는 다시 失業이 수반되는 均衡點에 있게 된다.

이와같은 單純化된 狀況에서 實際의 經濟狀態는 다른 양상을 띠 수가 있다. 만일 經濟



〈그림 3〉



〈그림 4〉

가 처음에 b 點에 存在하고 있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은 需要牽引 보다는 費用引上에 의하여 發生될 수가 있으며 需要牽引과 費用引上이 同時에 作用될 때는 있게 된다. 또는 高物價에 대한 消費者의 反應이 費用引上에 따른 雇傭과 所得水準의 감소만큼 낮추지 않을 때 침체下の 雇傭水準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y_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그림에서 (bc) 또는 (dc) 를 費用引上 區間으로 볼 수가 있다. 즉 이 區間에서 物價水準과 失業이 同時에 增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費用引上 現象이 스택그플레이션을 說明하는데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다. 즉 이는 費用을 引上시키고 따라서 物價를 上昇시키고 있다. 만일 消費者들이 높은 物價水準에서 財貨의 購入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產出物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따라서 失業은 증대되게 된다.

<그림 4>는 스택그플레이션에 대한 또 다른 方法에 의한 說明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스택그플레이션의 原因을 全적으로 費用引上 과정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처음의 經濟 狀態를 a 點에서 出發하고 있으며 이는 經濟가 相對적으로 完全雇傭水準에 거의 도달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完全雇傭에 대한 政府의 政策이 없다고 할 때 勞動組合 또는 農業, 企業 등의 壓力團體가 賃金, 價格 또는 利潤마진등을 상승시켰을 때 總供給曲線은 S 에서 S' 로 轉位되게 된다. 이제 總需要에는 아무런 變化가 없다고 가정하면 經濟가 a 點에서 b 點으로 움직임에 따라 不況과 인플레이션은 더욱 深化되게 된다. 物價水準은 p_0 에서 p' 으로 상승되며 國民所得水準은 y_0 에서 y' 로 下落하게 된다.

더우기 經濟壓力團體에 의한 이와같은 과정이 反復되면 總供給曲線은 S' 에서 S'' 로 轉位되게 되며 따라서 b 點에서 c 點으로 움직이게 됨에 따라 스택그플레이션 現象은 더욱 深化된다.

이때 이와같은 과정이 어느 地點까지 持續될 수 있는나에 대한 問題가 야기된다. 만일 政府가 總需要의 增加를 가져올 수 있는 政策을 取하지 않는다는 것을 國民 모두가 인식하게 되면 위의 과정은 反轉될 수가 있게 된다. 즉 供給曲線이 S, S', S'' 로 上向轉位되는 代身 完全雇傭水準을 이룰 수 있는 S''' 으로 反轉되게 된다. 이와같은 경우는 美國의 경우 아이젠하워 대통령시절(1953 ~ 1961)에 경험한바 있으며¹⁴⁾ 우리나라 經濟에 있어서는

14) M. Broufenbrenner, *Monetary Macroeconomics, Part II* (mimeo), Duke Univ, p. 1114.

1980年以後의 現在의 상태를 부분적으로 說明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VI. 不確實性下的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總需要 側面에서 技術的인 微調整(fine-tuning)에 대한 問題點에 대하여 살펴 보
고자 한다. <그림 2>에서 <그림 4>까지는 財政金融政策의 변화를 容易하게 分析하기 위
하여 總需要曲線 D 를 一定하게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D 를 一定하게 유지하는 것
은 現實 世界에서는 可能하지 못하며 클라우어(Clower)와 레온후바드(Leijonhufvud)는
이 點을 강조하고 케인즈의 경제학과 케인즈學派의 經濟學과의 差異를 主張하고 있다.¹⁵⁾

總需要는 巨觀經濟政策에 영향을 받는 것과는 別道로 그 自體 특징을 지니고 있다. 特히
完全雇傭의 維持나 回復을 위한 정부의 政策에 따라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관계없이 政
策에 대한 不信성을 갖고 있을 때의 總需要와 政府의 財政金融政策이 있을지라도 雇傭과
賃金率에 대한 悲觀的인 見解가 있을 때의 總需要와는 그 성질이 매우 다르다. 즉 이와같
은 總需要의 可變性이 케인즈의 經濟學과 케인즈學派의 경제학과의 根本的인 差異가 될 것
이다. 클라우어와 레온후바드에 의하면 케인즈는 그의 「一般理論」에서 不確實性이 存在
하는 조건下에서 需要의 可變性(volatility) 特히 投資需要의 可變性을 強調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케인즈學派에서는 대부분 準確實性의 條件下에서 需要의 決定에 強
調하고 따라서 이의 可變性 보다는 需要의 모양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제 인플레이션의 抑制 과정에서 一時的인 失業이 發生된다고 가정하자. 또한 이 失業
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取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진 需要曲線 D 와 失業에 따른 임금과 利潤마진의 下落 또는 生産性의 증가에
의한 總供給曲線의 S' 으로의 轉位로 問題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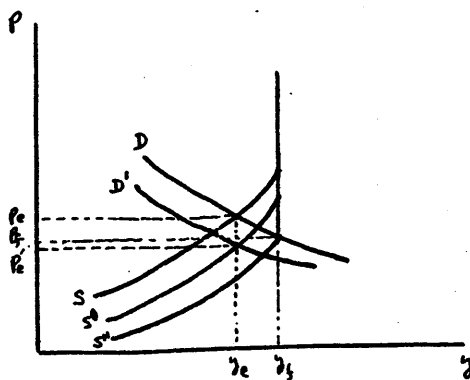
그러나 클라우어와 레온후바드에 의하면 케인즈는 이와같은 政策에 反對하는바 이는 悲
觀的인 方向으로 不確實性을 增大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失業과 損失에 대한

15) A. Leijonhufvud, *Supra* n. 2., 그리고 *Keynes and the classics*, occasional paper 30, IEA, 1969,
R. W. Clower, "The Keynesian Counter-Revolution: A Theoretical Appraisal", in F. Brechling and
F. Hahn (eds.), *The Theory of Interest Rates*, London, MacMillan, 1965. 參照.

광범위한 공포와 完全雇傭水準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얼마만큼이나 賃金과 利潤마진이 下落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不確實性 때문에 消費需要 特히 投資需要는 確實性下的 즉 潛在的(notional) 需要函數에 유지되지 않고 보다 낮은 有效 需要인 D'' 으로 轉位되게 된다.¹⁶⁾ 同時에 그리고 同一한 과정으로 供給者 역시 낮은 價格 下에 財貨와 用役을 提供하기를 꺼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確實性에서 잠재적인 供給曲線 S'' 에서 實際적으로는 S' 로 轉位하게 된다.¹⁷⁾

따라서 <그림 5>에서 볼 때 비록 物價는 p_0 에서 p_0' 로 下落하였지만 D' 와 S' 의 均衡點에서 y_0 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 이는 디플레이션이 完全雇傭의 達成에는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결과는 特別한 경우이겠으나 이는 「一般理論」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케인즈의 一般理論은 1930年代의 大공황의 歷史的 記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 期間中 西歐에서는 總需要를 維持하거나 또는 擴大시키는 것이 아니라 低下시키는 巨觀政策을 遂行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디플레의 政策이 보다 심각하지 않은 經濟狀態下에서는



<그림 5>

16) 여기서 潛在的(notional) 需要와 有效(effective) 需要는 各各 消費者에 의한 豫想된 所得에 기초된 수요와 實現된 所得에 기초된 需要를 各各 가르킨다. Clower, supra no. 15. 參照.

17) 信念의 상태를 反映하기 위하여 期待變數(expectational variables) 를 包含시킨 計量模型이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 代表的인 것으로 Ray Fair, "On modell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979, pp. 86-91. 參照.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 될런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오늘날 디플레이션은 매우 좋지 않은 이름을 지니게 되었다.

V. 結 論

케인즈는 不確實성이 常存하고 있는 現實世界에서 大量 失業에 대한 傳統的인 說明을 기각하고 雇傭 創出을 위한 公共支出의 正當性을 부여한 政策指向의 理論을 提示하였다.¹⁸⁾ 이에 따라 一部에서는 理論의 論理的 展開는 무시될지 모르나 政府의 介入을 가져오는 政策의 有用性을 選好하는 한편, 反面에 一部에서는 傳統的 理論을 고수, 理論의 論理的 展開를 選好하고 있다.¹⁹⁾

이 글에서는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학의 위기”를 야기시킨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過程을 巨視經濟理論에 의하여, 그리고 不確實성의 개념을 導入하여 說明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스태그플레이션의 內容에 따라 다음의 結果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巨視計量的 微調整은 不確實하고 그리고 위험을 기피하는 世界에서는 그 신빙성이 確實하고 그리고 위험을 選好하는 世界에서 보다는 많이 弱화될 수 있다. 따라서 不確實性을 增加될 수 있는 政策 보다는 不確實성에 反作用하는 需要擴張政策이 優先하게 된다.

둘째, 인플레이션을 中止시키거나 또는 減速시킨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雇傭과 生産의 費用이 수반된다. 特히 이와같은 社會的 費用은 短期에 있어서는 더욱 클 수가 있으며 社會的 費用에 대한 代價를 치루고자 하지 않을 때에는 그 結果는 인플레이션과의 共存 밖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언젠가는 不確實성의 問題가 지금보다는 덜 심각한 變數가 될 수 있겠으나 이 때에는 政府에 의한 巨視政策에 관한 內容이 모두에게 充分히 解明하고 또 잘 알려져야 할 것이다.²⁰⁾

넷째, 經濟思想史의 面에서 볼 때 케인즈는 “케인즈의 經濟學”에서 즉 需要函數의 可

18) D. Patinkin, *From the Tract to the General Theory*, (Mimeo), 1974, p. 197.

19) A. G. Hines, *On the Reappraisal of Keynesian Economics*, London, Martin Robertson & Co., 1971, p. 9.

20) 그러나 Friedman은 政府 政策의 實際 效果는 처음 意圖하였을 때와는 흔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指摘하고 있다. *challenge*, may / June 1979. p.68.

產 業 研 究

變性과 不確實性의 世界에서 再解釋 또는 再評價될 때 正統的인 케인즈學派에서의 경우 보다도 經濟政策 專問家로서의 位置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巨視經濟理論 그 自體는 充分히 스태그플레이션을 說明할 수 있으나 그 치유 方法은 政策選好者에 따라 그 意見이 달라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은 不確實性下에서 短期政策처방으로서 볼 때 自虐的인 디플레이션이나 加速的인 인플레이션 보다는 選好될 수가 있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 A.S. Blinder, *Economic Policy and the Great Stagfl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 M. Bronfenbrenner, *Monetary Macroeconomics* (Mimeo), Duke Univ., 1971.
- M. Bronfenbrenner and F. Holzman, "A Survey of Inflation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63, Reprinted in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nd Royal Economic Society, *Surveys of Economic Theory*, Vol. 1, 1965.
- R. Clower, "The Keynesian Counter-Revolution: A Theoretical Appraisal," in F. Brechling and F.H. Hahn (eds.), *The Theory of Interest Rates*, London, Macmillan, 1965.
- P. Davidson, *Money and the Real World*, New York, Halstead Press, 1972.
- H. Frisch, *Theories of Inf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3.
- R.F. Harrod, *The Life of John Maynard Keynes*, London, Macmillan, 1951.
- A.G. Hines, *On the Reappraisal of Keynesian Economics*, London, Martin Robertson, 1971.
- R. Jackman, C. Mulvey and J. Trevithick, *The Economics of Inflation*, 2nd ed., Oxford, Martin Robertson, 1981.
- H.G. Johnson, "A Survey of Theories of Inflation", *Essays in Monetary Economic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7.
-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Harcourt & Brace, 1936.
- ,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37, reprinted in R.W. Clower (ed.), *Monetary Theory, Penguin Modern Economics Readings*, 1973.
- , *A Treatise on Probability*, 1921, reprinted in *The Collected Writings of J.M. Keynes*, London, Macmillan, 1973.
- A. Leijonhufvud, *On Keynes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s of Keyne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8.
- , *Keyness and the Classics*, Occasional Paper 30,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69.

不確實性과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 D. Patinkin,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from the Tract to the General Theory*, (mimeo), 1974.
- G.L.S. Shackle, *Uncertainty in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55.
 , *Expectations in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49.
 , *The Years of High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66.
- E.R. Weintraub, *General Equilibrium Theory*, London, Macmillan, 1974.
 , *Microfound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79.

